

자율동아리 훌륭한 중학교

고입에 유리? 관심 분야 탐구가 우선!

최근 중학교에서 자율동아리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한 배움·활동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셈. 고입에 유리할 것이란 생각도 자율동아리의 인기 상승에 한몫한다. 대입에서 '동아리 활동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중학교에도 영향을 미친 것인데, 고입 지원자가 많은 일부 교육특구에서는 과열 양상이 보여 우려되고 있다. 중학교의 자율동아리 활동 현황과 고입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봤다.

취재 심정민 리포터 sjm@naeil.com

도움말 조경호 부장(용인외대부설고등학교 입학홍보부)·최이권 교사(서울 연주중학교)

김학수 대표(김학수 입시연구소)·조재형 소장(스카이패스진로진학연구소)

자료 교육부·학교 알리미

Reader's letter

중간고사 이후 중2 아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진학하고 싶다고 합니다. 학교생활은 성실히 잘해온 편이라 교과 성적이나 학생부 기록은 딱히 걱정이 없는데요. 문제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준비하는 아들 친구들은 하나같이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더라고요. 특목·자사고 진학 시 자율동아리 활동에 가산점이 있는지, 입시에 유불리로 작용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이라도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오은정(가명, 46·서울 서초구 양재동)

중학 자율동아리 인기 속 교육특구는 과열 조짐 우려

고등학생들이 주로 참여한다고 여겨졌던 자율동아리가 중학생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학교 알리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중학생의 35.9%가 자율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유학기 전면화 이후 관심 분야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학교에서도 정규 프로그램만으로는 학생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자율동아리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같이 교육특구로 이름난 지역에서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표 1). 한테 아들 지역에서는 자율동아리를 둘러싼 갈등이 최근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김소영(가명, 45·서울 강남구 대치동)씨는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 중인 아이는 중1 때 로봇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했다. 얼마 전 학생부를 확인하

니 관련 기록이 없어 담당 선생님께 문의했다. 학교에서 정한 ‘한 학기 8시간 이상, 1년에 16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는 규정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 규정을 엄수하지 못한 것은 아이의 잘못이지만, 관련 규정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학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처럼 자율동아리 활동보다 학생부 기록을 둘러싼 잡음이 많다. 이에 대해 중학교 현장 교사들은 자율동아리 운영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탐구부터 신문 읽기, 영어 토론 등 특정 주요 교과에 몰려 있다는 것(표 2). 활동을 원하는 학생은 많은데, 교사들이 한정돼 있어 과학 교사의 경우 정규 동아리와 자율동아리 3~4곳을 한꺼번에 맡는 상황도 발생한다.

최근 중학교 수업이 학생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이를 위한 수업 연구에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함을 고려할 때, 다수의 동아리까지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하소연이다.

표 1_ 서울 3개구 자율동아리 개설·운영 개수

지역과 학교	적용시기
광진구 ㄱ중학교	15개
도봉구 ㄷ중학교	13개
강남구 ㅇ중학교	30개

참고 학교알리미 (2018년 5월 공시 기준)

표 2_ 서울 L중 자율동아리 운영 현황 및 관련 교과

동아리명	인원	관련 교과
과학탐구토론동아리	12	과학
코딩동아리	20	과학
RC모형항공기반	18	과학
고궁연구반	11	사회·역사
오케스트라	70	음악
우리동네배우기	12	사회
독도기자단(독도생태연구)	15	사회·국어
수·과학 또래 도우미	10	수학·과학
번역공작소	15	영어·국어
시그마와 루트	12	수학
시사탐구동아리	10	사회
영어디베이트반	12	영어
서울건축물탐방동아리	10	사회·과학

교육특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현재 중학교 자율동아리는 학교가 규정한 인원을 학생들이 모으고 직접 교사를 찾아 지도를 부탁한다. 한데 학생들의 수요가 특정 주요 교과 활동에 집중돼 있다. 학생들이 기특해 수락하지만, 수업 시수가 원체 많은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라 자율동아리 활동을 꼼꼼히 지도·관리해줄기가 쉽지 않다”고 답한다.

또 다른 중학교 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입시용으로 여기고, 활동을 곧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 반면 상당수 중학교 교사는 학생부 기록을 맡 그 대로 눈에 띄는 학생의 ‘특기 사항’이 있을 때 기록한다고 인식한다. 특히 자율동아리는 학생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교사의 개입 자체를 최소화하는 편이다. 이 같은 양측의 인식 차가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없는 것보단 낫다? 문제는 진정성

중학교 단위의 자율동아리 활동이 정말 고교 입시의 당락을 좌우할까? 외고나 자사고 등 별도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는 자율동아리 활동에 특별히 주목하진 않지만, 있다면 나쁘지 않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면접에서 자율동아리 활동 내용을 학생에게 확인하는 일이 최근 많아진 것은 자기소개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작성한 지원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때도 자율동아리 활동 자체가 아니라 진정성, 즉 자신의 관심 분야 탐구를 위해 했던 노력,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 등을 물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된다고 한다. 외대부고 입학홍보부 조경호 부장은 “외대부고는 개인의 역량만으로 비교과 활동을 한 학생은 선호하지 않는다. 많은 학교의 인재상이 다양한 구성원 안에서, 타인과 더불어 탐구하는 학생이다. 화려한 활동 내역이나 우수한 성적의 팀원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탐구해본 경험을 눈여겨보며, 자율동아리의 원래 목적 역시 이에 있음을 기억하리”고 강조한다.

“현재 중학교 단계 자율동아리 개설이나 활동 붐은 대입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본다. 단, 고입도 대입도 당락은 결국 학업 역량이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자율동아리 활동이 학업 역량을 높여줄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학생부 기록은 미미한 수준,
교과 역량에 집중하는 게 우선**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율동아리는 학생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특정 영역을 테마로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부원을 모집해 교사 1인의 지도에 따라 운영된다. 보통은 학기초에 붓물 터지듯 개설되지만, 학기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학교 개설 정규 동아리가 아니므로 활동은 보통 점심시간이나 수업 이후, 주말 등에 진행된다. 따라서 시간이나 활동과 관련한 계획을 꼼꼼히 세우지 않으면 충실한 활동이 어렵고, 학업 시간 확보에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학생들, 특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야 해 부담이 큰 고입 지망 학생들이 자율동아리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뭘까? 서울 언주중 최이권 교사는 “현재 중학교 단위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규 동아리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규 동아리는 40~50개 정도다. 전교생이 700명인 학교에서 정규 동아리 50개를 개설한다면 산술적으로 한 동아리에 14명이 배정된다. 인기 있는 동아리나 자신이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 중학교에선 ‘가위바위보’ 실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최 교사는 “자율동아리는 정규 동아리에서 해소하지 못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제도는 정말 좋다. 단순한 흥미이든 정말 입시가 목적이든 지적 탐구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궁

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한다.

김학수 입시연구소 김학수 대표는 “현재 중학교 단계의 자율동아리 개설이나 활동 붐은 대입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단, 고입도 대입도 당락은 결국 학업 역량이 좌우한다. 자율동아리 활동이 학업 역량을 높여줄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교육 당국의 학생부 간소화 정책에 따라 자율동아리 기록 여부에도 변화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생부 창의적 체험 활동 란에는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이렇게 4개 항목이 있다. 여기서 자율동아리 활동은 기재 분량이 많이 축소됐다(표 3). 적용 시기별로 대상 학년이 다르므로 확인해 봐야 한다.

스카이패스진로진학연구소 조재형 소장은 “대입도 마찬가지지만 고교 입시에서 자율동아리의 영향은 크지 않다. 미미한 기록의 면면을 입시에서 제대로 보여주려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자율동아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고 당부한다. @

표 3_ 학생부의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방법과 개선 내용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적용 시기		
			2019	2020	2021
자율 동아리 활동	기재 개수 제한 없이 자율동아리명, 활동 내용 등을 특기 사항 란에 기재.	학년당 1개만 기재할 수 있으며 동아리명, 동아리 활동에 대한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 이내로 기재.	초1~6 중1 고1	중1~2 고1~2	중1~3 고1~3

출처 교육부